

독일사의 특수성*

韓 基 榮**

목 차

- | | |
|----------------|-------------------|
| I. 서론 | c) D. Blackbourn |
| II. 영·미 학자의 공격 | d) R. Evans |
| a) D. Calleo | III. 독일 역사 학자의 반론 |
| b) G. Eley | IV. 결론 |

I. 서론

Weimar 공화국(1918~1933) 시기에 많은 역사학자가 독일사의 특수성을 서술하고 그리고 그것의 긍정적 평가에 얼마나 집착했는가 하는 것은 Bochum 토론의 결과 B. Faulenbach에 의해 나온 작품 “독일적 방향의 이념” “제국시대(1871~1918)와 국민사회주의 사이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독일사”가 보여주는 바이다. 물론 Weimar 공화국 시대에 있어서 독일 역사학자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동질은 아니었다. Faulenbach가 조심스럽게 끌어내고 있는바,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화국의 싸늘한 인내와 Weimar 체제의 보수 반동의 기피 사이를 방황했다. Weimar 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역사 서술은, 제국시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질서와의 일치, 양해, 그 이상을 알지 못했다. 당연하다고 본다. 나라마다 그 나름의 특유한 역사를 가지는데 왜 독일만이 남다르게 특수성을 강조하는가? 정확히 1980년 “독일 역사서술의 신화”에서 비롯한 특수성 논쟁은 지금까지 영·미 학자들과 독일 역사학자 사이에 계속되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독일역사는 어떻게 독일적인가? 서유럽의 다른 나라 역사와

* 이 논문은 1987년 3월 30일자 제대신문에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人文大學 助教授

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 독일적 역사발전의 특수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해야 하는가? 왜 독일에서는 Faschismus가 승리했으며 서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은 시민 민주주의는 승리하지 못했는가? 19세기와 20세기 독일 역사의 의미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책임의 비중을 국민사회주의적 독재정치(Nazi)에 돌려야 하며 또 그래도 되는가? 이것이 소위 <Sonderweg These>의 알맹이가 되는 문제들이다.

II. 영·미 학자의 공격

a) D. Calleo (미국)

1873~1896년의 경제적 대침체가 Bismarck를 보호주의 및 제국에서의 새로운 보수연합으로 이끌었으며 한편 유럽에서의 그의 제휴외교의 해결을 서두르게 했다. 독일 경제발전을 위한 두려움과 희망은 독일의 정책을 1차 세계대전으로 유도한 광범한 지정학적 전망의 필수적 부분이었다.¹

보호주의와 제국주의는 과잉생산의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역순환적 정책을 위한 수단 그리고 Bismarck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계속적 합법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대규모의 농업과 증공업은 대외적으로 독일의 팽창을,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기 위해서 서로 결합했다. A. J. P. Taylor는 "독일의 경제적 구조 형성은 별나게 권력지향적이고 침략적 성격을 지닌다. 독일의 경제 발전은 국내에 집중하고 공격적인 대외무역을 지향하는 예외적 증상주의 성향을 보여 왔다. 사실 독일의 모델은 Cobden의 평화적 자유주의에 의해 고무된 것이 아니라 Clausewitz의 무장 증상주의에 의해 고무되었다. 무역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었다. 1879년의 보호관세는 전쟁 무기였다. 결과적으로 독일제국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불안한 이단자(an unstable maverick)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

독일경제의 특수한 것은 무엇인가? 영국, 프랑스, 벨기에, 혹은 미국과 비교했을때 독일의 경제성장은 매우 늦게 왔으나 매우 빨랐다.³⁾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geopolitical)는 사뭇 다르다. 영국은 거대한 제국, 대양을 지배한 함대를 가진 섬의 나라였다. 독일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국도 아니고 필적할 만한 함대도 없었다. 독일의 지세는 세계무역에 쉽게 뛰어 들 수 없게 했다. 더구나 독일은 2개의 크고 점차로 적대시되는 대륙의 강대국 - 러시아와 프랑스 - 에 의해 둘러 쌓여 있었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식량을 자급자족했으며 또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1) D. Calleo, *The German Problem Reconsidered* (New York : Cambridge, 1980), p. 57.

2) Ibid. pp. 58~59.

3) Ibid. p. 60.

방대한 국내 원자재를 가졌고, 프랑스는 대외 공급에 대한 접근이 보다 확실했다. 따라서 독일 지배층의 환영을 받은 확실한 결론은: 독일은 농업을 보호해야 하며, 자급자족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⁴⁾

1차 세계대전과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과의 밀접한 관계를 Calleo는 2개의 group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Marx의 영향을 받은 group ② Schumpeter의 영향을 받은 group이다. ①의 그룹은 자본주의 일반을 비난하고 ②의 그룹은 특히 독일을 비난한다. ①의 Marxist, 예컨대 Lenin, Luxemburg 등은 역사적 제국주의자 갈등의 이론을 우선 독일 경제발전의 해석에 둔다. 은행에 의해 가차없이 집중되는 자본가 경제는 과잉 생산능력과 투자 자본에 의해 시달림을 받았다. 몰락을 피하기 위하여 각국은 적당한 시장 및 투자의 기회를 확실히 해주는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 이러한 강력한, 역동적, 그러나 불안정한 국민경제 조직의 관계는 점차로 Darwinian(극단의 대립)으로 발전했다. 전쟁은 당연했으며 군비 지출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 장치가 되었다. ②의 Schumpeter, Veblen 등은 독일의 침략적 대외정책을 산업화, 권위주의적 정책 그리고 반동적 사회의 특수한 결합에 연결시켰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독일문제는 자본가 보다는 Junker(토지귀족)의 영향이 컸다. 독일의 늦은 경제발전은 부르조아가 서야 할 자리를 빼앗았고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봉건적 Junker의 엘리트가 독일 사회와 정치를 계속 지배했다. 그러나 이들 지배계급의 농업경제의 기초는 치명적으로 몰락하고 있었다. 근대화하는 사회내에서의 소멸을 피하기 위해 그들 계급의 특허인 전쟁을 일으켰다. 군국주의와 대중선동 정치에서, 그들은 최극의 과학기술을 격세유전의 이상(atavistic ideals)과 결합시켰다. 따라서 독일의 침략성은 자본주의의 성장이 아니라 근대화하는 사회내부의 쇠퇴해 가는 전(前)자본가 계급의 영구화 그리고 그 가치에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Schumpeter의 견해는 2차 세계대전중 쓰여진 Alexander Gerschenkron의 책 “빵과 민주주의”에서 강력히 보강되었다.⁵⁾ Schumpeter 그룹의 분석은 비록 Junker 지배권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있기는 하나 독일 제국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시한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전쟁을 전면 전쟁으로 전환시킨 국가는, 다른 어느 강대국이 아니라, 그것은 영국이었다.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쟁을 치루는 쌍방에서 그것의 비중이 대체로 결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영국이 균형을 바로 잡는 자, 그리고 평화 유지자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914년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 1911-1913년 사이 각국의 헥타르당, 밀, 호밀, 보리, 귀리, 감자의 수확을 아래의 도표에서 살펴 보면, 다른 나라보다 독일의 수확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따라서 영국을 괴롭힌 독일제국의 여러가지 정책 가운데, 농업 보호주의는 중요한 의미가 없다.

4) Ibid. p. 69.

5) Ibid. pp. 73~74.

6) Ibid. p. 68.

Harvest year		Wheat	Rye	Barley	Oats	Potatoes
1912	Germany	22.6	18.5	21.9	19.4	150.3
1912	Russia	6.9	9.0	8.7	8.5	81.7
1912	Austria-Hungary	15.0	14.6	16.0	13.0	100.2
		12.7	11.6	13.9	10.4	84.4
1911	France	13.8	14.3	14.3	12.6	74.2
1912	Canada	13.7	12.0	16.7	15.0	115.8
1912	United States	10.7	10.6	16.0	13.4	76.2
1912/13	Argentina	9.3	-	-	14.1	-
1911/12	British India	8.7	-	-	-	-

Note : 1 metric cwt=220 lbs.

Source : Karl Helfferich, *Germany's Economic Progress and National Wealth, 1888-1913* (New York : Germanistic Society of America, 1914), p. 55.

상업면에서, 영국은 독일의 곡물 보호관세에 의하여 뒤떨어 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공격적 덤핑과 결합된 국내에서의 산업 보호주의 정책에 의해서 뒤떨어 졌다. 그러한 정책을 만든 사람은 Junker가 아니었다. 사실 독일 함대의 후원자도 Junker가 아니었다. 간단히 말해서 영·독 사이의 적대감정을 부채질한 정책 명령자는 Junker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적극적인 후원자 - 산업 경영자 그리고 중산층의 민족적 자유주의자 - 였다. 이들 "modernist"는 더우기, Schumpeter 그룹이 암시 하는바 독일 정책의 수동적 관찰자도 아니었다. 정치 및 문화 면에서의 농민의 계속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새로운 산업화 계급으로 분명히 옮겨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특징이었다. Caprivi episode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농촌 엘리트는 주도권을 상실했다.⁷⁾ 이제 Calleo가 설명하는 사회적·문화적 부문 가운데 Anti-Semitism을 살펴 보겠다. 6백만 유태인에 대한 Nazi의 냉혈적 살인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물론 독일만이 전율할 만한 서방 민족은 아니다. 영국은 아일랜드와 인도인을, 미국은 인디언과 필리핀 사람을 대량 학살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마비시키는 흑인 노예제의 잔인성과 타락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것 가운데 어떠한 것도 Nazis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Hitler는 지정학자로서 독일인이었고, 인종학자로서 오스트리아 인이었다.⁸⁾

Hitler는 독일의 생활 공간의 확대를 5가지로 제시했다. ①산악제한 ②이민 ③내적 식민 ④수출 기구 ⑤영토 확장 ①과 ②는 인구제한을 의미하고 ③은 과학적 토지 개간 ④는 해외 시장의 개척 ⑤는 이웃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것이었다. 유태인은 다른 민족사회의 내부에서 기생층으로 생활

7) Ibid. pp. 77~78.

8) Ibid. p. 86.

했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을 분열시킴으로써 번영했다. 유대인의 영향으로 독일민족은 정치적 스펙트럼(Spectrum)의 양쪽으로 부터 독기가 스며든다. 좌익에서, 유대인은 Marxism의 창안자요 선전자이다. Marxism은 계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노동자의 불만을 이용했다. 우익에서, 유대인은 국제 금융자본주의의 주인이며 선전자였다. 그러한 자본주의는 소유와 노동의 인간성을 말살시켰다.⁹⁾ Hitler의 Antisemitismus(유대인 배척주의)는 동유럽의 산물이다. "그들은 다르기 때문에 없어야 한다."(Weil sie anders sind, müssen sie weg.)¹⁰⁾ 많은 청중에 호소하기 위해서, 전통적 당은 Marxism에 대항할 수 있는 대중의 이념을 필요로 했다. 민족적 자유주의자가 종종 제국주의로 바뀌었음에 반해 보수주의자는 반(反) 산업적 농업주의로 바뀌었다. 농업국가는 의무, 계층, 회생 그리고 정의의 공동의 미덕에 기초를 둔다. 이에 반해 산업국가는 쾌락, 야망 그리고 이기주의에 기초를 둔다. 서방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산업화는 국제적 갈등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보수주의 경제학자는 주장한다. 농업의 회생은 가장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타락시키고 비천하고 불안정한 사회로 이끌 뿐만 아니라 경쟁적 국제 영역에서 민족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보수주의자가 정치적 기반을 이룩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그들이 두려워한 국내 세력과의 Faust적 타협 - 그들의 가치에 하찮은 그들의 이해에 치명적인 - 으로 이끌었다. 반근대주의의 이념은 반영국일 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였다.¹¹⁾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정치적 책략의 가방 안에 있었다.¹²⁾

b) G. Eley (영국)

1980년 Eley와 Blackbourn은 "Mythen deutscher Geschichtsschreibung"을 내놓았으며 4년후 그것을 보완하여 영문으로 "The Peculiarities of German History"란 제목으로 출판했다. Eley가 힘주어 강조하는 Bourgeoisie - Liberalismus - Demokratie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보다 큰 사회적 결합속에 언제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비록 사실상의 결합의 정도가 독일 및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해도, 소시민, 수공업자, 농민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이러한 사회적 결합에 포함되어 있었다.¹³⁾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적·경제적 힘 - 대(大)부르주아와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물론, 소생산인,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9) Ibid. p.92.

10) S. Haffner, Anmerkungen zu Hitler (Wien: Kindler, 1978), p.16.

11) D. Calleo, op. cit., pp.141~142.

12) Ibid. p.146.

13) D. Blackbourn/G. Eley, Mythen deutscher Geschichtsschreibung(Ullstein Materialien 1980) S. 24.

어떻게 그리고 무엇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하나의 특정한 정치적 형식 내지는 결합으로 굳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다양하며, 그것을 만들었을지도 혹은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론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한, 이러한 결합의 관통력, 통일성 및 혁명적 가능성은 사회적 구성의 복합성과 발전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¹⁴⁾ 왜냐하면 산업화의 불균형한 발전이 형태를 달리하는 계급 대립의 넓은 스펙트럼(ein weiteres Spektrum)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체로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력은, 소생산인과 소매 상인에 비교하여 더욱 강해졌으며, 각각의 목표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 거꾸로 말해서, 부르주아 발전이 약할수록 “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으며, 대중운동의 우월과 내적 결합이 더욱 강했다.¹⁵⁾

어떠한 사회적 집단이 정확히 자유주의를 대표했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 경제의 진행은 물론,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의 정치적 힘의 균형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복합성 및 자유로운 정책 형성의 유연성에 비추어 볼때, 자유주의가 정확히 부르주아계급 이해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우기 자유주의의 유형은, 독일 부르주아를 말하려고 할 때 보다 자세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정치적 전통 혹은 정치적 운동의 민족적 변형이 무엇때문에 어떠한 이상적 유형(예컨대 영국)과 일치하도록 기대해야 하는가는 불분명하다. 보편적 원리의 추상적 모델에 의해서 자유주의(예컨대, 민족적 자본주의 및 부르주아 해방으로서의 자유주의, 시민적 자유의 실현으로서의 자유주의, 혹은 의회 대표제 및 복수 정당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 심히 비역사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럽역사의 세계적 배경에서 불균형하고 복합적 발전의 예측할 수 없는 동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유주의적 운동의 민족적 존재조건의 필연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영국과 독일을 비교할 경우 이와 같은 진행은 2중으로 잘못되었다. 첫째로 선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준을, 초기의 상호관계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20세기로 부터 수입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숙한 대외제, 국가의 법에 의해 보장받는 시민권에 대한 특별한 해석) 두번째로 이 주제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대외제 정부형태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가에 대한 전혀 비현실적 관념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¹⁶⁾

둘다, 1832년과 1867년의 상당히 제한된 선거권 부여를 제쳐 놓고 민주화의 외연(das Ausmaß)을 과장하고 있으며, 특히 1790년에서 1822년 사이에 나타난 영국 정부의 억압 능력 — Richar J ohnson은 이것을 가리켜 반동적 혹은 관료적 적응력에 대한 영국적인 잠재력이라고 한 — 을과소 평가하고 있다.

14) Ibid. S. 24.

15) Ibid. S. 25.

16) Ibid. S. 26.

영국 역사의 진행에서 나타난 >산업화<와 >민주화<를 조화있게 일치시킨다는 것은 구체적 역사 지식에는 어긋나는, 전혀 내려온 독단이였다. 게다가 >자유주의적<→>시민적<으로의 개념적 의미 변화는 나아가 >자유주의<는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다 위험한 등식 관계를 만들었다.¹⁷⁾

독일에서의 서로 다른 부르조아 분파는 스스로의 이유를 들어 민주주의적 변화의 이익을 의심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주장은 보다 큰 의회 세력이, 당시 가장 우세했던 유일한 정당 SPD의 이익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혁명적 사회주의에 맡겨진 과거 노동당의 존재는 - 분명히 Edward시대의 영국에는 나타나지 않은 - Gladstone식의 재휴의 기회를 앞질러 가졌다. 영국에서의 자유주의는 공동의 노동계급과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의 이익을 거둬 들였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독일에서는, 비교적 발전하고 활발한 노동계급과의 결합의 위협으로 인하여 자유주의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욱 "근대적"인가 하는 것은 토론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유 민주주의의 부재(不在)는 독일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형태에 의해 나타난 사회적 및 정치적 힘의 균형속에서 매우 특수한 기원을 가진다는 것이다.¹⁸⁾

결론적으로 말해서, 함축성 있는 인과관계의 사슬(die implizierte kausal kette) Bourgeoisie=Liberalismus=Demokratie라고 하는 표현은 부르조아 혁명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 오해에 기인한다고 본다.¹⁹⁾

c) D. Blackburn(영국)

"Wie es eigentlich nicht gewesen." 독일 역사의 서술을 위해 이러한 표현이 보다 나올 것이다.²⁰⁾ 독일에서의 부르조아 사회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문제는 부르조아 사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 사회의 애매 모호함에 있다.²¹⁾ 19세기 영국에서의 부르조아는 Oxford, Cambridge, 사립학교 Marylebone 크리켓 클럽의 시설등 여러가지 제도로서 독특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독일 부르조아 역시 토지 구입, 사냥, 그리고 교양있는 직업과 행정적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 자녀를 교육시킴으로써 마찬가지로 목표에 이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평가할 때 형식과 내용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상징을, 전통적 특권계급의 고풍어린 가치를 위한 결정적인 승리로 해석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여러가지 점에서 독일의 Junker는, 부르조아 쪽

17) Ibid.

18) D. Blackburn/G. Eley, The Peculiarities of Germa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122.

19) D. Blackburn/G. Eley, Mythen deutscher Geschichtsschreibung, S. 27.

20) D. Blackburn/G. Eley, Mythen deutscher Geschichtsschreibung, S. 71.

21) D. Blackburn/G. Eley, The Peculiarities of German History. p. 206.

에서의 적용을 보다 적게 요구했다.

더욱 도시풍의 Junker는, 그들이 부르조아에게 줄 수 있었던 사회적 주장과 섬세한 감정을 덜 가졌다.²²⁾ 독일 역사의 특수성은 Hans Rosenberg가 말하는 위대한 3화음(계급, 신분, 권력)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동시성이 없었다는 데서 나타난다.²³⁾ 모든 민족의 역사는 특수하다. 그러나 어느 민족의 역사가 다른 민족의 역사 보다 더욱 독특하게 보일 수도 있다. 역사적 특수성의 개념은 비교사에 있어서 분명히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특수한 민족의 역사에 비교되고 필요한 것을 찾는 표준으로서 보다 많이 응용되었다.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종종 성공적 부르조아 프로그램을 이룩한 것에 대한 제한된 생각을 적어도 은연중에 원용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상승세에 있고 사회적으로 자아 의식이 있는 계급이 성공적 투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의회제도, 근대적 가치와 더불어 전통세력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에서 볼때 독일 부르조아는 실패작이었다.

“위로 부터”의 물질적 표현에서 그들이 희망한 것을 받아 들였다. 반면에 정치적 생활 및 사회적 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지배적 역할을 산업화 이전의 요인에 맡겼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보다 제한된 시각에서 볼때는 바뀌어 진다. 나는 부르조아 혁명의 개념을 물질적, 제도적, 법적, 그리고 지적 변화의 광범위한 패턴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넓은 패턴의 누적된 효과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보다 강한 힘이 된다. 여기에서의 열쇠는 시민 사회이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19세기 독일에서 전개된 시민 사회의 조직과 의미를 찾자는 것이다. 그것은, 재산 관계, 시장경제에서의 변화, 법의 지배에서 그들이 받아 들인 것, 진보의 이념, 사교적 생활, 후원, 취미, 존경의 개념이 뜻하는 바를 살펴 봄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독일 부르조아의 문화적 절망, 시민적 평온, 그리고 사회적 봉건화의 괴로운 현상이 자리를 잡는다.²⁴⁾

따라서 희망과 불안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었다.²⁵⁾ Walter Benjamin이 “Paris”를 19세기의 수도라고 불렀듯이 우리는 독일 전체의 의미를 20세기의 “비극의 땅”(Tragic Land)으로 불려도 좋겠다. 그러한 비극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및 도덕적 감각은, 만약 우리가 그것을 오로지 독일적 특수성의 최후의 정점으로만 바라 본다면, 무디어 지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와 진다.²⁶⁾

d) R. Evans (영국)

“The Myth of Germany’s Missing Revolution”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소개 하겠다.

22) Ibid., p. 231.

23) Ibid., p. 238.

24) Ibid., pp. 287~288.

25) Ibid., p. 214.

26) Ibid., p. 292.

Hitler가 독일에서 권력을 쥐고 인간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12년 동안의 유혈과 파괴를 행한지 어언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왜 Fascism은 이러한 극단적, 민족주의적, 파괴적 형태로, 다른 곳이 아닌 독일에서 세력을 펴게 되었는가? 왜 독일의 의회 민주주의는, 더구나 1929~33년의 경제적 위기 가운데,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Harold Laski는 1943년의 글 "우리 시대의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독일은 결코 Bourgeois 혁명을 경험치 못했고, 독일의 전통적 지배계급은 20세기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논했다. Talcott Parsons는 1942년의 글에서, 특수한 독일 가치 체계의 요인으로서 봉건제의 지속, 관료제의 권력, 정당에 대한 조직된 이해 집단의 지배, Title에 대한 부르조아의 취향, 등을 언급했다. Weimar 공화국 시대, 이들 가치의 위기는 Nazi 독재의 제도를 통해 그러한 가치를 회복하려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Ralf Dahrendorf는 1915년 초에 출판된 Thorstein Veblen의 글을 인용하여 1960년,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은 봉건적 사회전통과 왕조국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자본가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Bourgeoisie는 귀족정치의 가치를 채택했으며 Junker는 국가의 주요제도 - 군대, 관료조직 및 법원 - 를 계속해서 지배하였다. Winston Churchill은 1911년의 독일 정부를, 강력한 Junker 계급에 의하여 지지를 받는 "군사적·관료적" 과두정치, 소수 독재정치로 묘사했다. 같은해 Northcliffe경은 독일 산업의 위태로운 입장과 내부개혁에 의한 그들 특권의 파멸을 막기 위하여 가능하면 외적 분규를 강요하려고 하는 프로이센 Junker의 결정속에서 전쟁의 위험을 예견했다. Barrington Moore는 1966년의 글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그것은 우세한 구지배 계급과 약하고 종속적인 부르조아 사이의 연합, 그것을 통하여 경제는 변화하였으나 사회적, 정치적 권력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서술하기 위하여 "보수적 근대화" (Conservative Modernization)라는 표현을 썼다.²⁷⁾ Evans는 구조적 계속성의 이론을 취급하면서, 1950년대의 보수적 독일 역사학자의 변명론적 태도와는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면서 독일의 과거에 대하여 새롭고 보다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인 면에서의 이들 특수성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Marxist 역사 서술의 독립적인 그리고 독단적이 아닌 전통이 계속 부족했다. 국경선 넘어 확립된 Marxist - Leninist 정설의 존재가 서독인으로 하여금 Marxism을 Leninism 및 Soviet 지배의 위협과 동일시 하게 했다. 서독의 공산당은 프랑스 및 이태리 공산당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더욱 정확하게 말해서 서독의 공산당은 동독의 Marxist-Leninist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2년 Franz Borkenau는 일찌감치, 절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위협에 저항하여, 정취권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Big Bourgeoisie가 필요했다고 하는 설명을, Weimar 공화국의 비효율성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Fascism은 ①민주적 규범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을 앞서 가는 곳에서 ②오랜 시간 동

27) R. J. Evans, The Myth of Germany's Missing Revolution (New Left Review Vol 149: London, 1985), pp. 67~68.

안,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민주적 규범이 뒤져 가는 곳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독일사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적 해석이, 1960년대 학생 세대의 과격주의를, 보수적 견해에 대항하는 스스로의 투쟁속으로 통합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²⁸⁾

1918년의 혁명과 Weimar 공화국은 정부 및 사회복지의 섬세한 조직의 형성에 SPD의 참여를 가져왔다. 1923년의 인플레이션 이후 나타난 철저한 경제적 합리화는 높은 실업과 petty(소) 부르주아의 소외화를 희생으로 하여, 보다 근대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 산업체제를 만들었다. Weimar 공화국의 이러한 모든 현상은 1929년과 그뒤의 경제적 침체에 의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 SPD는 복지국가를 와해하려는 시도를 봉쇄했으며, 독일 공산당의 급속한 성장은 더욱 나쁘게 부르주아를 위협했다. Petty 부르주아는 한층 더 과격해 졌으며, Nazi 당을 지지하기 위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록 경제적 의미에서 복지국가 정책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공산당을 파괴하고, 조합을 억제하였다고 해도, 의회 민주주의, 분산된 자본은 정치적 차원에서 그들의 이해를 조화시키기에는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웠다. 이러한 파국(破局)속에서, 그들의 인내 혹은 지원을 받아 Hitler의 독재정치가 탄생한 것이다.²⁹⁾ D. Abraham의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그리고 D. Blackbourn과 G. Eley의 글은, 독일 근대사의 중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Marxist 접근으로서 이바지 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³⁰⁾

Ⅲ. 독일 역사학자의 반론

많은 독일 학자의 글 가운데, 1988년 Bielefeld에서 Berlin 자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J. Kocka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3사람(Calleo, Eley, Blackbourn)의 주장은 비교적 새롭지 않다고 해도, 그들의 이야기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 비록 Calleo가 - 많은 다른 역사학자 처럼 - 지리적 중심부와 그럼으로써 강력한 외부의 압력을 언급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러한 압력으로 독일 제국과 같은 큰 힘이 늦게 생겨났으며 그것이 폭발적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되었거나 쓸데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왜 독일제국은 그러했나를 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중심부 그 자체로서는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Calleo가 독일 산업화의 시기가 늦었고, 독일 민족국가의 형성이 늦었기 때문에 독일 정치의 특수한 어려움이 있고, 프랑스와 영국이 알지 못하는 독일 나름으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는 납득이 갔다.

그러나 Calleo는 이러한 "지체" (Verspätung)의 영향을 외교정책에만 물음으로써 문제를 단순화

28) Ibid., pp. 70~76.

29) Ibid., pp. 90~91.

30) Ibid., p. 93.

시키고 있다. 문제는 보다 복잡하다. 산업혁명, 헌법문제, 국민국가의 형성이,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시기에 이루어져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이들 3가지 문제가 같은 시기에 의사일정에 올랐다는 사실이, 다른 나라가 알지 못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더했다. 그것은 사회적 구조, 사회갈등, 국내정책에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대외정책에 작용했다. 만약 Calleo가 Kaiserreich(1871~1918)에서 거듭 논의된 "Sozialimperialismus"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견해를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 사회구조, 지리적 위치, 외교정책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Calleo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야 한다. Calleo는 경제, 지리적 위치, 대외정책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왜 독일은 Faschistisch화 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했나 하는 설명의 책임이 남게 된다. 국민 사회주의 성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및 정치내적 상황은 오늘날 서독의 국내 상황과 마찬가지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Calleo는 Weimar와 Bonn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사색은 건디기 어렵다. Sonderweg These의 비판으로서의 Calleo의 책은 설득력이 없다.³¹⁾ Eley와 Blackbourn에 있어서도 약간의 금을 많은 모래와 섞고 있다. (mischt sich ein bißchen Gold mit sehr viel Sand.) Calleo와 마찬가지로, 영국, 미국과 비교해 볼때, 독일의 발전이 뒤졌음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해 영·미의 발전을 이상화 시킨 사실을 Blackbourn과 Eley는 역시 이유없이 비판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비교연구는 어렵고 드물다. 때마침 두사람은 유럽 어느 곳에서도 부르조아 계급 홀로 정치적 지배권을 얻지 못했으며, 부르조아와 귀족 사이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 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들은 19세기 독일 부르조아의 봉건화를 특수한 경우로서 관찰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사실 영국에서는 20세기 까지 토지 소유 귀족이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과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귀족의 생활양식과 가치가 대부분이 부르조아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산업화에 어울리고 산업화로 이익을 얻은 귀족적 Elite의 권위의 계속은 유럽 전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오직 독일만의 특수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J. Schumpeter가 이미 이것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A. Mayer 역시 이 These를 - 아마도 날카롭게 -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과 부르조아 사이의 결합의 양식과 정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귀족 가문의 산업적 활동의 시기 및 강약)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우선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Eley와 Blackbourn은 1) 근대화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 2) 영국이 결코 표준은 아니다. 3)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서로 다른 사회적, 정치적 조건 아래에서 가능하다. 4) 산업화, 자유 시민 사회, 정시적 민주화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란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격은, 오래전에 제기된 많은 근대화 이론의 변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31) J. Kocka, Der "deutsche Sonderweg" in der Diskussion. (German Studies Review Vol. 5 : 1982), S. 370f.

모르나 Sonderweg These의 핵심을 맞히지는 못한다. 특히 Blackbourn의 글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Kaiserreich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요인에 대한 흥미있는 언급이 나타난다.

1) 시민적 문화 시설, 2) 시민적 개인의 권리, 3) 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등의 표현이다. 사실 Kaiserreich의 도시 생활의 많은 것은 Blackbourn의 주장대로 시민적이었다. 그러나 누가 그 반대를 주장했는가? 그의 주장처럼, 사회 전범위에 걸쳐 부르주아의 지배를 말할 수 있을만큼 자료가 충분하나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Eley의 글은 상대방을 자기가 좋을대로 축소, 과장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Bourgeoisie가 Liberalismus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또다른 예는 Kaiserreich에 있어서 대기업의 가부장적 성격은 그들의 이익에 알맞았다고 Eley는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누가 그 반대를 주장했단 말인가? 비슷한 시기, 미국의 다른 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가부장적 성격의, 산업화 이전의 기원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대체로 Eley는 미국과의 비교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이 비슷하게 급속도로 발전했고 독일과 비슷하게 대기업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낳았다. 독점 자본주의의 논리는 Eley가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Blackbourn과 Eley 두사람은 Sonderweg These의 알맹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³²⁾

우리에게는 - 영국·미국과는 달리 - 공적인 관료제의 형성이 산업화, 의회제도의 성립에 선행하였으며, 독일 사회사는, 오늘날 까지, 영·미 국가와는 달리 국가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독일에서는 자유주의와 노동운동의 분리가 있었음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독일과 영국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2권의 책이 그렇게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지 묻고 싶다. 이제 커다란 수정주의적 태도가 호응을 받는다. 많은 비평가가 사료를 더이상 빠뜨리지 않는다고 해도 협박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러한 수정주의의 입장은 폭넓은 욕구에 응할 수 있다. "독일인의 망상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Frankfurt 신문은, 위의 2권에 대하여 적극적, 수페이지의 비평을 실었다. 그것이 알맹이다. 우리 역사의 고통이 Auschwitz까지 단순히 망상으로, 벗겨 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독일 현대사를 기술할 때 필연적으로 국민 사회주의의 독재정치로 달려야 했고 어떠한 다른 발전의 대안이 없었다고 쓴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다. 진지한 역사학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종전후 4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사를 1933년 당시의 관점과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역사학자는, 사실,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여러가지의 계속성을 끌어낼 수 있다. 19세기 및 20세기 초기의 독일사는 서독, 동독 역사의 전사(Vorgeschichte)일뿐만 아니라 또한 제3제국의 전사이다.

32) Ibid., S. 375.

Kaiserreich와 Weimar공화국의 해석에 있어서, 그것의 사실상의 미래가 제3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 한다면 어리석고, 생각이 깊지 못한 편견이 될 것이다. 그뒤의 몇 10년을 조리개로 가림으로써(durch Abblenden der späteren Jahrzehnte) 당시, Kaiserreich, Weimar 공화국 시대가 참으로 어떠했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환상일 것이다. 더우기 역사적 정의의 표준으로서, 정치적, 도덕적 논의를 한다는 것은 치환(置換) 비교에 견줄만 하다. 이러한 조처는 학문적으로 성과있는 해석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독일 국민사회주의의 가능성의 조건의 문제는 달리는 찾을 수 없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에 시야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선택적 관점에서는, 비교할 만한 그러나 Faschist로 전환하지 않은 국가나 사회와의 비교가 이바지 할 수 있다. 동기 유발의 방법론적 기회가 아직도 오랜동안 파헤쳐 지지 않았다. 역사학자의 작업이 비록 일차적으로, 독일적 파국의 조건에 대한 관심으로 부터 이끌리어 지지 않았다고 해도, 독일사의 특수성과 고유성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남으며 비교를 통해서만 해답이 나올 수 있다. 발전한 모범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비로소 독일 역사학자는 영향력있는 관료국가의 형성이, 산업화 의회제도화, 민주화에 선행하였다는 복잡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성취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 독일 사회구조에 있어서의, 노동자, 고용인의 특수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인식할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의 다양한 변형을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변형이 독일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분상의, 관료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반해, 나라마다 변화하는, 영향력 있는 전산업자본주의적 전통과 나머지 사회구조에 의해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다 (Erst durch Vergleich mit den anderen erkennt man sich selbst.)³³⁾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독일 Faschismus의 조건에 대한 이해관계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외부에서 쉽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독일 Sonderweg These의 개념을 삼가할 수 있다. 게다가 필수적 비교연구는 독일적 특수성외에 비교하기 위해 끌어들인 국가사이에 무엇이 공통적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무엇때문에 늘 서유럽의 국가와 미국이 비교되어야 하는가? 독일인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국민 사회주의의 오랜기간, 영향을 미친 조건의 비교연구를 위해, 훌륭한 근거를 들어, 어떻게 관습이 되었는가? 등을 밝히지 못했다. 비교국의 선정이 어떤 문제를 먼저 주제로 할 것인가와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결국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독일사의 특수성은 영국이나 미국대신 러시아와 비교한다면 매우 다르게 서술된다. 오로지 학문적 기준으로서만 비교국을 선정할 수는 없다. 역사적, 역사 서술적 관습외에 인간이 논쟁하는, 그러나 다른 곳으로 방향을 옮길 수 없는 규범적 고려가 하나의 역할을 행한다. 또한 국제적 비교는 거의 없고, 지역간의 비교는 많다고 하는 문제의 제기 및 관심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

33) Ibid., S. 378.

날의 경제사는 물론, 문화사와 생활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의 관심은 여기에서 토론한 비판의 유효한 방법으로서, Sonderweg These로부터, 지역적, 지방적 발전으로 향하고 있다. (auf regionale und lokale Entwicklungen lenkt.)³⁴⁾

IV. 결 론

용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과실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아직도 무엇인가 좋은 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³⁵⁾ 독일적 특수성에 대하여 변명적 견해는 더 이상 바르게 주장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의 개성이 다르듯이 민족과 나라의 역사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독일역사 만이 특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비극의 역사적 도덕적 감정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다 역사학자의 태도에서 날카로와 질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945년 이후 독일사의 특수성에 관하여 자유민주주의적, 비판적 변형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Meinecke의 작품을 꼽을 수 있겠다.

“세계를 손안에 넣는다고 해도, 그의 영혼이 병들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Was hülfe es, wenn man die Welt gewönne und nähme doch Schaden an seiner Seele.)³⁶⁾ 다른 시각에서 Faschismus를 살펴 보자.

“만약 러시아 혁명이 바르게 진행되었고 농민과 노동자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운동이 되었다고 한다면 곧 바로 다른 여러 나라가, 손에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러시아 혁명을 뒤 따랐을 것임에 틀림없다.……반동은 궁극적으로 - Faschismus, 새로운 전쟁, 경제적 및 사회적 파국을 - 불가피 하게 했다.”³⁷⁾ 만약 Volin의 설명이 옳다면 “독일은 마치, 나이덕은 Soprano처럼 무대에서 은퇴할 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³⁸⁾ 그러나 Calleo 역시 Evans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1871년 까지 독일의 지방 분권화한 정치 구조 속에서 법과 질서의 유지를 담당한 사람은 지방적 권위, 아마도 Junker 계급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제국 아래에서도 계속되었다.”³⁹⁾ “인간은

34) Ibid., S. 379.

35) A. I. Herzen, Ausgewählte Philosophische Schriften (Verlag Fur Fremdsprachige Literatur : Moskau 1949) S. 515.

36) F. Meinecke, Die Deutsche Katastrophe (F.A. Brockhaus : Wiesbaden, 1965), S. 152.

37) V. M. volin, “Die Zwei Ideen der Revolution.” in J. C. Traut (Hg.), Russladn Zwischen Revolution und Konterevolution, (Willing Verlag : Munchen 1974), S. 53.

38) D. Calleo, Ibid., p. 207.

39) R. J. Evans, “Prostitution, State and Society in Imperial Germany”, Past and Present, No. 70(Feb. 1976), p. 109.

언제나 동일한 것을 추구한다는 전제는 옳다. 그러나 인간은 개개인의 특수성을 달리한다는 것 역시 옳은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⁴⁰⁾ 결론으로 Whlhelm Dilthey의 표현을 인용하겠다. “따라서 인간의 특성 그 자체는 그의 행위에 의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하나의 비밀이다.” (Daher ist der Charakter des Menschen diesem selbst ein Geheimnis, welches ihm nur seine Handlungsweise teilweise sichtbar macht.)⁴¹⁾

40) K. Jaspers, Vom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R. Piper & Co Verlag : München 1966) S. 342.

41) P. Kirm, Einführ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Sammlung Göschen : Berlin 1972) S. 71.

Zusammenfassung

Deutsche Sonderweg

Han Kee-young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gegenwärtige europäische Diskussion über den sogenannten deutschen Sonderweg.

Ausgangspunkt dieses Aufsatzes ist die Auseinandersetzung mit symptomatischen Beiträgen (Calleo, Eley, Blackburn, Evans, und Kocka) zu dieser Frage für den Koreanischen Leser.

Einige Autoren vertreten die Meinung, daß heute die Schattenseiten der deutschen Geschichte und die damit verbundene Selbstkritik zu stark hervorgehoben wird.

Historiker sind in einer Weise vorgegangen, die sich mit Orwell nach dem Motto : alle nationalen Historien sind besonders, aber einige sind besonderer als die anderen, beschreiben läßt.

Das Resume dieses Aufsatzes zitiert Jaspers, daß "der Mensch überall verschieden sei, differenziert bis in die Besonderheit der Individuen" was nicht die Tatsache der übergeordneten Gemeinsamkeiten leugnet.